

# 문수보살 머무는 청량한 산

월 1회 연재

## 백두대간 숨결 듣는다

→7←



◇상원사 문수보살상(국보 제221호).

오대산은 백두대간의 심장이다. 위로는 동해안을 끼고 진부령을 넘어 설악과 금강산으로 이어지고 아래로는 대관령, 두타, 태백, 소백 산맥의 장엄한 신경을 펼쳐고 있다. <신경요>와 <대동여지도> 등에 따르면 오대산은 남쪽 대관령, 북쪽 구룡령, 서쪽 계방산, 동으로는 동해를 품으며 1563m의 주봉 비로봉을 솟구쳐 올린 거대한 산맥을 갖추고 있다. 동서 20km, 남북 33km, 660km의 광대한 면적이 모두 오대산의 품이다. 평창군과 양양, 홍천, 영주군을 거느린 강원도 지세의 중심이 되기도 하는 오대산은 문수보살의 주처로서 '오대산 신앙'의 중심 도량을 이루고 있다.

계곡이 깊어 어머니의 품 같고 봉우리가 높아 아버지의 사랑 같은 산, 오대산에 가을 빛이 시나브로 익어가고 있다. 오대산의 풍광 속에 들면 금세라도 문수보살을 만날 것만 같다. 산 전체가 산이면서 다섯 대(臺)로 하나의 법당을 이룬 오대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대산 신앙'과 신라 고승 자장율사를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하루 계를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백년을 과계하고 살기를 원치 않는다"며 출가했다는 자장율사는 신덕여왕 3년(636)에 당에 들어가 구법수도의 행장을 펼친다. 스님은 중국의 오대산(청량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너희 나라의 동북쪽 명주방에 오대산이 있고 거기에 일만명의 문수보살이 늘 머물고 있으니 만나보라"는 얘기를 듣는다. 환국한 자장스님이 명주방을 찾으니 다섯봉우리가 우뚝한 산이 있고 중국의 오대산과 흡사한 도관을 갖추고 있음을 알게되어 문수도량 오대산을 열었다.

### 전나무 숲길 유명

중국의 오대산이 청량산이라 불리는 것은 위치가 나라밖의 동북쪽에 있으며 기온이 청량쾌(淸冷爽快)하기 때문인데 고국의 산 역시 그 여건에 부합해 있었던 것. 자장스님이 오대산에 부처님의 정골사리를 모시고 적멸보궁을 창건함으로써 문수도량 오대산이 불교의 중심을 이루게 됐다.

이로써 주봉인 비로봉(1563m)과 효령봉(1560m), 상왕봉(1493m), 두로봉(1423m), 동대산(1433m)의 다섯 봉우리는 저마다 중대 사자암(적멸보궁), 북대



◇월정사 석조보살좌상(보물 제138호).

## 오대산



98 사진영상의 계절



◇상원사 적멸보궁 입비.



◇상원사 적멸보궁에는 3독심을 끊고 문수보살을 친견하려는 불자들이 매일 수백 명씩 찾는다.

동종을 주조해 걸었다. 보천과 효명태자가 오대산에서 수행했다는 기록은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이들의 수행 그 자리는 오대산을 중심으로 하는 효명신앙의 발원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실제 효명태자는 임종에 이르러서까지 나라를 위해 산중에서 행할 일들을 기록으로 남겼다. 산중에서 행할 일이란 '산의 사방에 관음, 미타, 지장, 나한 방(房)을 설치하고 밤낮으로 경전을 열송하라'는 것. 말하자면 오대산은 본존불과 사방불이 함께 주석하는 곳으로 나라의 평안은 물론 개인의 성불을 위해 수행하는 하나의 도량으로 자리잡아 온 것이다.

### 포이 본 문수보살

현존 최고(最古)의 동종 상원사동종(국보제36호)은 화려한 당초문과 그 사이의 불보살 조각, 공후와 생을 연주하며 하늘로 솟아 오를 듯 경쾌한 모양새를 한 비천상이 보는 이의 경탄을 자



◇월정사 전나무숲. 하늘을 찌를듯한 전나무 숲길을 거닐며 절을 향하다 보면 금방이라도 문수보살을 만날것만 같다.

## 보천·효명태자 수행 '信行結社'

5개 봉우리마다 암자... '오대산 신앙' 싹터  
보궁은 법신불 상징... 慈藏 개산정신 한암·탄허로

미륵암, 서대 수정암, 동대 관음암, 남대 지장암을 중심으로 오대도량의 면모를 계승해 오고 있다. 다섯 봉우리의 이름과 그에 해당하는 사찰의 이름 주처보살의 명호는 문헌에 따라 각기 다르다. 그러나 중대 사자암이 문수도량의 상징이란 점과 보궁의 자리가 법신불로서의 부처님이 상주하는 곳이라는 믿음은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즉 가운데 부처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보살이 주처

하는 형상이 오대산 신앙의 핵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오대산 신앙은 자장스님 이후 신라의 보천과 효명태자가 중대와 북대 밑에 주른 연꽃이 핀 것을 보고 그 자리에 풀로 엮은 집을 짓고 불발을 닦아 일만 문수보살을 친견함으로써 더욱 확고해진다. 특히 효명태자(성덕왕)는 왕위에 즉위하고 4년째 되는해(725)에 문수보살을 친견한 자리에 전여원(지금의 상원사)을 창건,

아내게 한다. 종의 보호를 위해 타종을 금하고 있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선 곳에서 울려 퍼지는 묘음을 지금은 들을 수 없지만 청량쾌한 산자락을 휘감으며 고해중생의 마음을 달랠던 동종의 여운은 온 가슴을 적시는 듯하다. 상원사 청량선원에 모셔진 문수보살상(국보 제221호)도 문수보살을 친견한 국왕의 황희심 어린 발원으로 조성된 성보다. 월정사를 참배하고 상원사로 오르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상원사동종의 용뉴. 섬세하고 생동감 넘치는 조각이 일품이다.



◇오대산 다섯봉우리중 가장 높은 비로봉.

새조가 계곡에서 문수동자를 만나 모의 종기가 씻은듯이 나왔다는 얘기는 너무나 유명하다. 문수보살의 가피력에 환희심을 얻은 세조는 화공을 불러 자신이 본 문수보살을 그리게 하고 조각해 상원사에 봉안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팔각9층석탑(국보제48호)과 석조보살좌상(보물 제138호)으로 이름 난 월정사를 중심으로 다섯 암자가 이룬 오대산의

불교 신앙. 자장스님의 발원에서 면면히 이어져 근세 고승 한암스님과 탄허스님으로 전해진 오대산의 선종과 교학이 오늘날 다시 발흥되고 있다. 8·25전쟁때 소실된 월정사는 해를 거듭하며 옛 사적을 복원하는 불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불이문이 중건되고 성보박물관인 보장각 건립 공사가 한창이다. 보장각에는 상원사 문수동자상 복장유물(보물 제793호, 세조의 저고리등 23점)과 팔각9층석탑에서 발견된 부처님 진신사리 37과를 비롯한 유물등 월정사 본말사가 소장한 성보문화재들이 전시된다. 또 새벽 포교의 중심인 전부 유체원건립불사도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경재불황 속에서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 전부 유체원 건립

상원사는 3년전부터 상역화 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중대 사자암을 재단장하고 상원사 요사채와 청량선원의 선종을 진작할 선원 신축도 진행되고 있다. 상원사 주지 정념스님은 "한암스님께서 목숨을 걸고 전화(戰火)로부터 지키신 상원사를 중창해 보궁과 오대에 상주하시는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세상에 전하고 근세에 한암스님께서 일으키신 선종을 잇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임연태 기자(yfilm@buddhania.com)  
사진=고영태 기자(ybgo@buddhania.com)

### ■ 청설모 잣새와 함께 사는 강수자보살

##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이 부처님세상"

오대산 중대 사자암의 강수자(60) 화주보살은 요즘 아침마다 청설모로부터 잣 한송이씩을 선물 받는다. 잣나무를 오르내리며 겨울양식을 준비하러 분주한 청설모 한 마리가 매일 아침 강보살을 향해 잣 한송이씩을 굴러 주기 때문이다. 강보살은 잣을 받아 양말이를 정성스레 모아둔다. 올 겨울 잣새에게 줄 양식이다.

3년째 사자암에 살고 있는 강보살은 겨울철 먹이가 없어 화주실 유리문을 두드리는 잣새에게 청설모가 준 잣 양말이를 주어 왔다. 또 마당까지 찾아 오는 청설모에게도 집속이나 잣양말이를 준다. 그렇게 겨울을 난 청설모는 가을철에 강보살에게 하루 한 송이씩의 잣을 굴러 주는 것이다. 잣새는 중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 주

는 것으로 잣값을 치른다. 강보살과 청설모, 그리고 잣새는 먹이를 나누고 서로에게 보은을 하는 아름다운 인연으로 만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눔의 기쁨'을 가르치고 있다. 강보살은 "한 알의 잣으로도 세상은 아름다와 질 수 있음을 실감한다"며 "모든 중생이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이라면 부처님 세상"이라 말했다.



### 응성스님 어록

우리의 본원각성은 본래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며, 자연아닌 것도 아니고 인연아닌 것도 아니고 일체의 형상을 여의고 일체 형상에 나아가서 살살이 사무친 것이다.

대성사(583-1475) · 대각사(765-0972) · 경주 천통사(0561-748-8815)